

분말성형프레스의 세계적 메이커로 성장하는 (주)대화프레스



대표이사 정도림

지난 10여년간 한국의 경제성적표는 참으로 난감하다. 90년대 초반에 GNP 1만 달러 시대로 도약한 지 불과 몇 년 후, 대한민국은 방만한 기업경영과 금융권 부실이라는 암세포를 낱알이 드러내며 외환 위기라는 최악의 상황을 연출했다. 거리에는 하루 아침에 직장을 잃은 우리의 아버지들로 넘쳐났고, 평생직장의 개념도 사라졌으며, 수많은 기업이 도산의 늪으로 사라져갔다. 3년 8개월 만에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빌린 195억 달러를 조기 상환하기는 했지만 2003년 현재, 다시금 최대의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

제도적인 취약점을 차치하더라도, 이제는 안전불감증이 아닌 경제위기불감증마저 생겨난 듯 하다.

극복하고자 하는 의욕도, 해결방법의 모색도 할 수 없는 지친 서민들은 자살과 대박을 꿈꾸는 현실도 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어디에나, 다수의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키는 소수가 있기 마련이다. 외환위기에 기하급수적인 환율상승으로 남들 한숨 지을 때, 최대의 호황기를 맞이한 업체가 있었으니 바로 분말성형프레스를 생산·공급하는 대화프레스였다.

국내 분말프레스역사의 산실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대화프레스는 1988년 창사이래, 기계식 및 유압식 분말성형프레스(Powder Compacting Press)만을 제작·판매하는 업체이



다. 20여년간 분말야금 전문기업에 종사했던 정도림 대표이사 및 창립멤버들의 노하우와 경험이 만들어 낸 국내 분말프레스 역사의 산실이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과 일본 및 독일 등에서 전량 수입했었습니다. 마모되거나 부분교체가 필요할 때에는 도면값을 따로 주면서까지 수입업체에 의존하는 상황이었지요.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국산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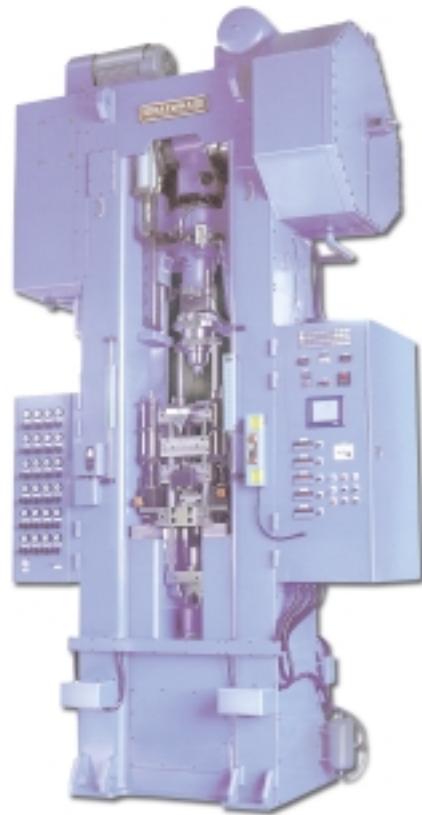
프레스 제조산업의 선각자들이 일궈낸 대화프레스는 자체개발 또는 정부지원 등을 통하여 현재까지 총 26개 기종의 분말성형프레스를 개발하였고, 현재도 신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92년에는 창원대학 기술연구소와 DIE속도 조절용 기계식 분말성형프레스를 공업기반 기술개발 사업으로 공동 개발했으며, '94년 본회의 국산화개발자금을 지원받아 2년여간 총 1억원을 투입, 100t급 기계식 대형분말성형프레스를 제작하기도 했다.

각종 분말성형품 제작에 사용되는 프레스는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형상이 성형될 수 있도록 미리 설계·제작된 금형을 본 기계에 장착하여 건식분말상태의 원료를 이용, 연속 자동으로 압축 성형하는 기계이다. 원료만 공급하여 주면 자동으로 성형되어 절삭가공이나 기타방법 등에 의한 부품제작보다 생

산량과 정밀도 등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을 뿐 아니라 원료의 낭비도 거의 없어 소재절감 등의 많은 이점이 있다고 한다.

응용생산품도 매우 다양하다. 자동차 부품, O·A, 사무기기, 기타 산업기계, 가전기 부품 및 금속 Filter류인 금속 소결 부품(Metal Sintered Parts)과 초경합금(Tungsten Alloy), 그리고 Hard Ferrite, Soft Ferrite 등의 인조자석, Fine Ceramics, Carbon Brush, Teflon 등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이다.

대화프레스는 1993년 태국과 일본으로의 수출을 시작으로, 미국, 중국, 대만, 홍콩, 인도, 말레이시아, 이집트, 중동지역까지 무대를 넓히고 있으며, 세계속의 프레스 메이커로 성장하고 있다.





철저한 품질 및 고객 관리

“시장이 한정되어 있어 입소문이 빠르고, 신설보다는 증설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아, 완벽한 품질관리와 철저한 A/S 및 신뢰성은 우리 회사의 생명입니다. 한 번 연결된 거래처는 다음에도 저희 기계를 찾습니다.”



치너수출지였던 태국 업체의 경우에는 대화프레스만 있을 정도라고 한다. 이제는 국산화에 성공한 지 10여년, 어느 정도 안정궤도에 올라 예전처럼 전문 오판상에 의뢰하여 수주경로를 개척하지 않아도 기존 거래처의 소개 및 이메일 상담으로 한 해 100만불 이상의 실적은 거뜬하다. 올해 경기침체 속에서도 현재 큰 상담 건이 이어지고 있다고.

정도림 대표이사는 “이상하게도 저희 회사는 남들이 어렵다고 하면 잘 됩니다.”라며 우스개소리를 했다. 그러나 대화프레스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성장의 시기로 전환시킬 수 있었던 근본은 정도림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 직원들의 노력과 땀의 승부였다.

1993년 태국으로 첫수출 할 당시의 일이다. 현재의 높은 기온과 습도를 감안하지 못한 데다, 포장 방법에 대한 경험도 일천하여 도착해서 열어보니 모두 녹이 슬고 변색되어 있었다. 다행히 수요자가 기계만 잘 돌아가게 해 달라는 선심을 베풀었고, 파손된 부분을 밤새도록 말끔히 수리하여 바로 대령하니, 오히려 감동하여 지금까지 그 인연이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세계 어느 곳이든 대화의 기계를 사용하는 측에서 문제를 의뢰하면, 열일 제쳐놓고 달려간다. A/S팀을 따로 두지 않고, 전 직원이 부서 구분 없이 현장과 관리를 멀티플레이어가 되어 중



힘무진한다. 언제 어디서든 고객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다.

국내의 전시회는 카달로그로라도 꼭 참여하며, 2001년에는 산업기술시험원으로부터 K마크를 획득했고, 작년에는 ISO 9001:2000 인증도 획득, 겉보기엔 작은 기업이 아주 알차고 튼실하다.

대화프레스의 세 가지 품질 방침

대화프레스의 직원중 60%는 창립멤버이다. 이제는 서로 눈빛만 주고 받아도 대화가 오갈 정도이니, 오히려 노조니, 동호회니 하는 것들은 거추장스러운 형식에 불과할 것이다. 작년에는 전 직원이 일본으로 가을여행을 다녀왔고, 연말이 되면 사전에 알아서 성과급을 지급할 정도로 정도림 대표이사의 직원들에 대한 배려 또한 남다르다. 수주가 들어오면 그저 알려주기만 할 뿐, 모든 과정의 시나리오와 제품설계는 직원들의 몫이라고. 대외신용도 뿐만 아니라, 사내 직원들간의 신용도도 만점이다.

현재 부채비율 제로인 대화프레스 정도림 대표이

사는 비교적 큰 어려움 없이 성장해 온 것은 사실이나, 몇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면 외주처리한 부품들을 공급하는 하청업체들의 경영난 및 인력부족이라고 한다. 이공계 기피 현상 등으로 기능공들이 점점 줄어들고, 나이가 연로화 되어 하청을 쥐도 심지어 거절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하니, 앞으로 그 심각성은 날로 증대될 것이다. 이 시대 모든 중소기업들이 안고 살아가는 무거운 짐이 아닐 수 없다.

대화프레스에는 품질방침이라는 세 가지 서약이 있다. 첫째는 최고의 기술을 위한 끊임없는 도전과 자기계발, 둘째 고객을 위한 최고의 품질과 철저한 서비스, 셋째 세계 초일류를 향한 신뢰성 구축과 한 마음된 인화단결이 그것이다. 최선을 다해서 생산품의 질을 높이고 수요자에게는 신뢰를 준다면 어느 기업이 성공하지 않을 수 있을까. IMF를 매출 급등의 기회로 삼고, 모든 위기 또한 슬기롭게 대처하는 대화프레스. 단지 때를 잘 맞추거나 운이 좋은 것만은 아닐 것이다. ■

글 · 이나나 | 홍보팀

